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제769호

제 2차 정기이사회 개최

- ◆ 일시 : 2019. 3. 7 (목) 오후 2시
- ◆ 장소 : 본부협회 회의실
- ◆ 안건 : 조합 건물 매입 조건에 관한 심의 의결



2018.12.7 제1차 정기이사회. 신임 이두승 이사장이 선출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TALK

TALK

OKBA

OKBA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Nestlé Ice Cream

2019년 신제품



2019년 품질 제품



2019년 가격 인상

<p>HD Van Almond 88ml</p>  <p>\$4.29</p>	<p>HD Van Milk Chocolate 88ml</p>  <p>\$4.29</p>	<p>DRUMSTICK Rolo Cone 135ml</p>  <p>NEW \$2.79</p>	<p>DRUMSTICK OREO 135ml</p>  <p>\$2.79</p>	<p>CHRISTIE OREO Sandwich 125ml</p>  <p>\$2.79</p>	<p>CHRISTIE OREO Sandwich 125ml</p>  <p>\$2.79</p>	<p>Lifesavers 65ml</p>  <p>\$2.29</p>
<p>HD Salted Caramel 88ml</p>  <p>\$4.29</p>	<p>NEW DRUMSTICK King Mocha Cookie Crunch 180ml</p>  <p>\$3.29</p>	<p>DRUMSTICK King Choc Fudge Brownie 180ml</p>  <p>\$3.29</p>	<p>DRUMSTICK Van 140ml</p>  <p>\$2.79</p>	<p>CHRISTIE CHIPS AHOY! Sandwich 125ml</p>  <p>\$2.79</p>	<p>PARLOUR Super Fudge 130ml</p>  <p>\$2.29</p>	<p>NEW MAYNARD Swedish Berries 65ml</p>  <p>\$0.99</p>
<p>HD Double Choc. Almond 88ml</p>  <p>\$4.29</p>	<p>DRUMSTICK King Straw Cheese Ck 180ml</p>  <p>\$3.29</p>	<p>DRUMSTICK King Sweet/Salty Caramel 180ml</p>  <p>\$3.29</p>	<p>DRUMSTICK Van Fudge 140ml</p>  <p>\$2.79</p>	<p>PARLOUR Super Sandwich 200ml</p>  <p>\$2.79</p>	<p>PARLOUR Vanilla Sandwich 100ml</p>  <p>\$1.69</p>	<p>NEW MAYNARD Fuzzy Peach 65ml</p>  <p>\$0.99</p>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OKBA 전무 : 전승원 (Sunny Chon)
sunnyc@okba.net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강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협회 : Tel (416) 789 - 7891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감사 3인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중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ia 회장 진재원(705)487-2005
Kingston 회장 이강정(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705)652-6323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04 - 07 / 편의점 주류판매 여론 과반수 지지

08 / OKBA 회원 종합 지침서 최초 발간

09 - 10 / 위조 지폐 기승
CBD오일 판매하지 말아야

11 / OCSA에서 협회 위상 강화 기대

12 / 조합 특감 종결 회장 인사말

13 / 2019년 OKBA 장학금 수여식 공고 및 장학생 명단

14 - 15 / 목전에 닥친 '평범한 담뱃갑'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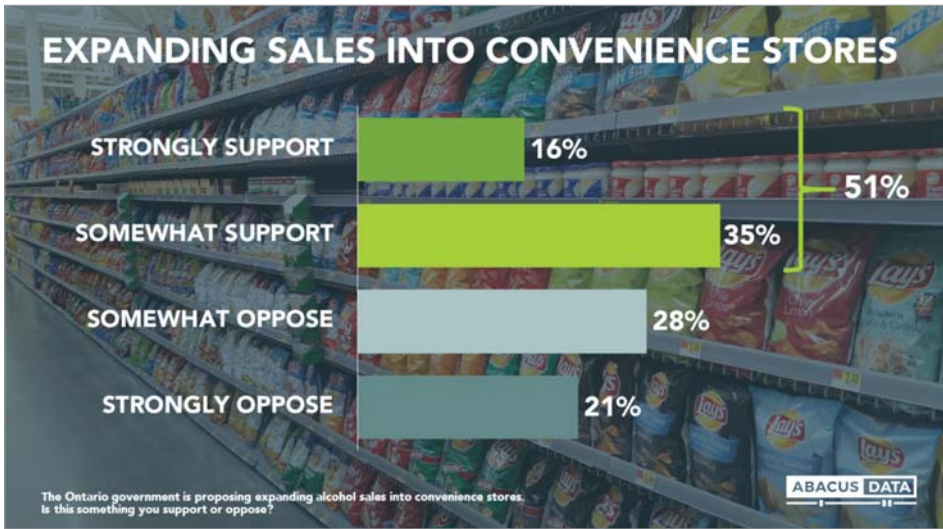
16 / 네슬레 전국공급사 컨퍼런스

17 / 2019년 CONVENIENCE U

18 / DORECTORY

정부 조사 결과 앞선 민간 조사 미리보기

편의점 주류판매 여론 과반수 지지



▲ 민간 여론 조사 기관 애버커스 데이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온주 주민 과반수가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권한 온주 보수당 정권이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문제를 포함한 주류판매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 민영 여론조사 기관인 애버커스 데이터(Abacus Data)가 동일한 주제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편의점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비록 근소한 차이이지만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에 대한 온주 민심은 찬성이 51%로 반대 49%를 앞섰다는 사실이다. 이하 이 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18세 이상의 온주 성인 8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타 기관의 용역 의뢰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공정성 시비 논란에서 자유롭다.

애버커스가 조사 결과에 대해 내린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다. 『현행 주류판매 시스템 통제 완화에 대한 온주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 아울러 현행 LCBO 체제에 대한 나름의 만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편의점을 포함한 민영 채널의 주류 판매 확대와 기존 민영 채널이 취급하는 주류 품목수 추가를 원한다.』

이하 세부 내용을 주제별(질문별)로 살펴본다.

■ 주류 소비 일반에 관한 통계

온주 성인 주민 10명 중 4명은 주당 최소 1회 음주하며 24%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7%는 주 1회 미만의 음주를 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젊은층보다 나이 많은 층이 더 자주 음주하고 있다. 정치



적 입장(정당 지지)과 음주 소비 패턴과는 거의 상관성이 없었다.

<채널별 주류 구입 빈도>

질문은 LCBO구입 실태와 식품점 구입 실태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표를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음주 빈도에 관한 질문 결과>

단위: %

구분	세부구분	매일	주 수회	주 1회	주 1회 미만	특별한 경우	전혀 안마심
성별	남성	10	19	18	13	18	23
	여성	5	14	14	13	29	25
연령별	18~29세	4	14	17	17	19	29
	30~44세	6	13	21	12	23	25
	45~59세	7	15	17	13	29	19
	60세 이상	11	22	9	10	22	26
지역별	토론토	7	21	15	15	17	25
	GTA	6	17	19	10	23	25
	동부	11	16	12	13	24	24
	남서부	10	12	10	16	29	23
	북부	5	12	24	8	37	14
정당지지	자유당	8	19	16	8	22	27
	보수당	8	20	17	13	20	23
	NDP	7	14	15	19	27	19
전체 평균		7	17	16	13	24	24



식품점은 자유당 정권때 허가해준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가진 식품점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온주 주민들이 LCBO를 이용하고 있고 식품점에서는 대부분 맥주나 와인을 구입하고 있다. 40%의 주민이 LCBO에서 규칙적으로 혹은 종종 술을 구입하며 20%는 식품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식품점 채널 허용이 시기적으로 얼마 안됐음에도 온주 주민들은 현재 주 전체에서 볼 때 맥주와 와인 구매에서 많은 편리함을 체험하고 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한국어로 친절하고 편리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빠르다! 간편하다! 저렴하다!

원솔루션

원솔루션 하나로 가능합니다.

일체형 연동 포스 시스템이란?

Cloud Server를 통한 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실시간 고객 매출등의 데이터 정보교환이 가능한 포스시스템 (FULL INTEGRATION POS SYSTEM)

- 데빗 단말기 연동
- 한국에서 설계 제조
- OLG 온라인, 스크래치 티켓, Winning Ticket, 바코드 형식 시행
- 매장의 모든 정보를 "Back Office" 서버에 저장
-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클라우드 서버로 보안과 최상의 스피드
- LCBO 아이템, 규정 지원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설치
- 총 \$2,500 (GTA 지역/ GTA 외곽지역 설치비 추가)

단말기 수수료 및 비용	DEBIT		CREDIT CARD			
	Chip & Swipe	Tap & Flash	Discount Rate	Transaction Fee	Brand Fee	Non-Qual
Convenience Store	3.65 cents	5.65 cents	1.40 %	No Charge	0.1 %	0.3 %
Other Type of Business	3.65 cents	7.15 cents	1.40 %	No Charge	0.1 %	0.3 %

Signing Bonus \$301, No Statement Fee, No Hidden Charges, Debit Machine 문제 발생시 - Tech Support 24/7

POS, ATM,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 Company

www.1solutions.ca
info@1solutions.ca

Toll Free. 1(888) 554-7355 Korean(ext 4) Direct Line. (905)560-4511 (416)900-7533 Fax. 1(888)554-0409

비록 취급 종류의 한계는 있지만 이미 민영 채널도 주류 구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현행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온주 주민들은 현행 LCBO 소매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며 특히 취급 선택의 폭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비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쇼핑 체험에 만족하고 있다. 신제품과 가격에 대해서도 나름의 만족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품점에서의 주류(맥주/와인) 쇼핑 체험에 대해서도 LCBO와 유사한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취급 품목 수와 전문적인 서비스에서 아직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CBO처럼 전문 주류 소매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다. 이하 세부 반응을 표로 정리한다. (단위는 응답자 %)

LCBO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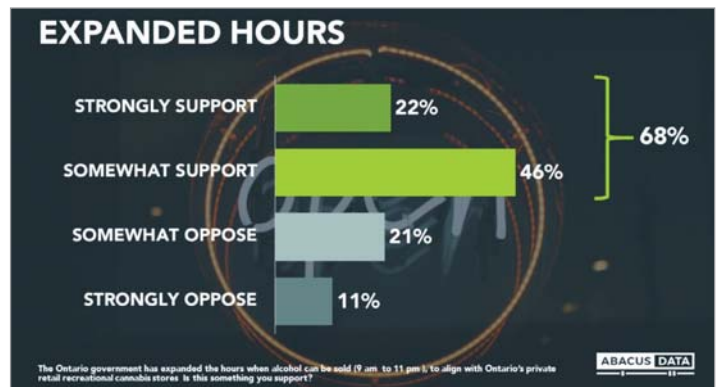
평가 항목	대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	아주 불만
● 선택폭	37	46	15		2
● 전체 쇼핑체험	25	54	19		2
● 종업원 서비스	31	45	21		3
● 신제품 만족도	24	48	26		2
● 가격	13	41	33	10	4

식품점 만족도

평가 항목	대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	아주 불만
● 선택폭	18	50	23		8
● 전체 쇼핑체험	16	51	28		4
● 종업원 서비스	15	49	30	4	2
● 가격	12	50	25	10	2
● 신제품 만족도	13	42	35	8	2

■ 주류 시스템 자유화에 대한 입장

주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온주 주류 시스템 자유화 (통제 완화)를 놓고 고려 중에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지지와 반대를 측정하는 질 문항이 있었다. 자유화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강력지지 또는 지지하는 쪽이 더 많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주민 2/3는 LCBO영업시간 연장(*작년 12월부터 시행 중) 정책과 식품점 독주 판매 추가 허용안을 지지했다. 정치적 성향, 즉 당파성 관련한 견해 차이는 없음을 확인했다. 이하 세부 항목별로 표를 통해 입장을 살펴본다.



표에서 보듯 질문항 “주정부가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판매 시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응이 거의 70%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교통위반 티켓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스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형법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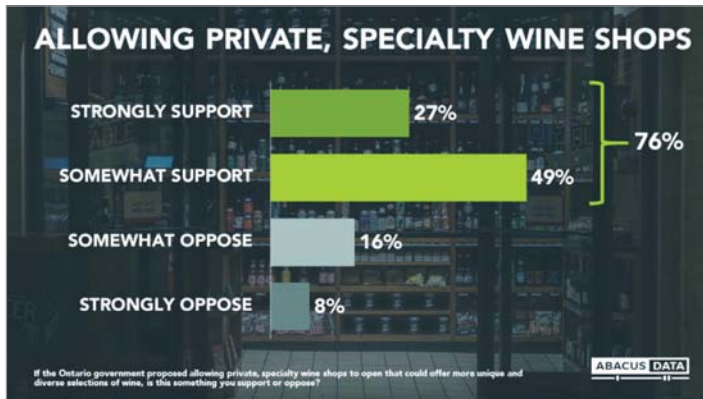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현재 맥주나 와인 판매를 허가 받은 식품점에서 위스키같은 독주도 추가로 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안에 대해 60%가 찬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반대도 40%이기는 하지만 넉넉한 차이로 지지가 앞선다는 점에서 주류 판매 민영화에 대한 온주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민영 전문 와인 소매업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6%가 찬성을 보였다. 특히 27%가 강력 지지로 강력 반대 8%보다 월등히 앞섰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에 대한 것은 본 기사 앞의 표 사진에서 보듯 근소하지만 과반수의 온주 주민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4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편의점 주류 판매를 가장 높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정부에서도 온주 주류 판매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을 비롯한 다양한 질문항을 통해 주민 여론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바 있다. 2월 1일날 마감한 정부측 여론 조사는 현재 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여타 여론 수렴 결과들과 종합해 조만간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민간 조사기관이 앞질러 민심의 단면을 미리 볼 금번 조사 결과를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정부의 편의점 주류 판매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

2차 정기이사회 개최

- ◆ 일시 : 2019. 3. 7 (목) 오후 2시
- ◆ 장소 : 본부협회 회의실
- ◆ 안건 : 조합 건물 매입 조건에 관한 심의 의결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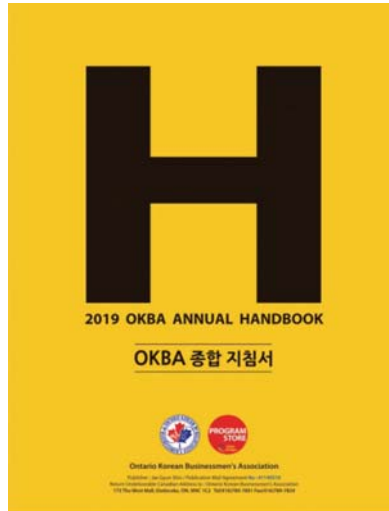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OKBA 회원 종합 지침서

최초 발간



▲ 2019 종합지침서의 표지. 총 40쪽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을 위한 종합 지침서인 'OKBA 핸드북'이 발간됐다. 연초인 지난 1월 10일 첫 지구협회장 회의 보고 때도 밝힌 바 있듯이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업소에 비치해놓고 필요하면 수시로 꺼내 볼 수 있는 도우미 북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한 것이다.

표지까지 총 40쪽의 나름 두툼한 소책자의 외관을 띠고 있는 '2019 OKBA Annual Handbook'이라는 타이틀의 지침서는 회원 가입절차와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인 담배영업 관련 법령 및 기관 소개가 앞부분에 배치돼 있다. 다음으로는 편의점 핵심아이템의 하나인 복권에 관한 정보로 OLG에 관한 사항, AGCO에 관한 사항등이 뒤를 잇는다.

연이어서 영업 주요 품목 관련 기본 상식과 해당 공급사의 동향은 물론 신제품 동향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항목은 협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OKBA 프로그램 스토어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담고 있다. 끝 페이지에는 필요한 유관 기관과 공급사 연락처를 소개하는 것으로 책자를 완성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종합 지침서는 지난 2월 7일 모든 회원들의 업소에 개별 발송했으며 올해 책자를 근간으로 해서 매년 한차례씩 개정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

<정정 사항 1>

이번 종합 지침서에서 정정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어 본 지면을 빌어 바로 잡는다. '7. 캐나다 담배시장과 베이프 시장 현황' 제하의 11면에 임페리얼 제품 바이프(vype)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서 두번째 사진 e-pod 사진이 잘못됐다.



<정정사항 2>

34면 '2019 Saputo Promotion'



5월/8월 프로모션
310ml Milkshakes All Flavours
Reg. price \$3.15 → **\$1.37**
Promotion price \$2.80 → **\$1.21**



10월 프로모션
NLS 1L 10% Cream
Reg. price \$1.76 → **\$3.14**
Promotion price \$1.66 → **\$2.76**

위조지폐 방지 기술이 현격히 발전했다고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위조지폐범들의 위조 기술은 한 수 위를 달리며 정부의 하이테크 기술을 비웃는 듯 하다. 광역토론토의 한 주민이 이를 최근 실감나게 느끼며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호소했다. 리치몬드힐에 사는 마이클 버디라는 이름의 이 주민은 최근 최고급 사양의 아이폰을 팔며 대금을 전부 20달러짜리 63장의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돈이 전부 위조지폐였다.

위조 지폐 기승 20달러와 100달러 집중

태로 보였다.

공교롭게 밝은 어두웠고 본인의 느낌에는 진짜 돈이라고 확신해서 받았는데 집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비로소 위조가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이후 더 정밀히 살펴보는 위조임을 알게 됐다. 일단 폴리머 소재가 짝퉁이며 양각된 잉크의 일부가 제거되어 있었다. 또 상당수의 지폐들이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겹쳐 인쇄된 상



▲ 육안으로 얼핏봐서는 진짜인지 위폐인지 식별하기 무척 힘들 정도로 정교한 위조지폐

연방경찰(RCMP)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나도는 위조지폐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발견되는 것은 점점 더 저조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2018년 봄에 비씨주 프레이저 벨리에서 유통되는 짝퉁 20달러가 한창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대서특필됐었고 유사한 시기에 온타리오주 런던에서는 100달러 위조 지폐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되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중앙은행은 신권이 발행될 때마다 새로운 보안 조치를 강구해왔으며 위조지폐 식별을 위한 계도와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폐는 위조하기 가장 힘든 부분, 예를 들어 홀로그램 부분이라든가 양각 잉크 처리 부분 (이 부분에 Bank of Canada가 인쇄돼 있음), 그리고 얼굴 사진 옆의 단풍잎 인근의 투명 윤곽 부분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식별이 된다.

(10면에 계속)

FEEL THE NICOTINE **RUSH**

STIG

DISPOSABLE
POD DEVICE

FULLY CHARGED
OUT OF THE BOX

1.2 ML
SALTYNIC LIQUID
PER STIG

6.0%
NICOTINE
BY VOLUME

20
CIGARETTES
APPROXIMATELY

Fresh Cool Mint

Juicy Sweet Mango

Rich Creamy Cigar

Iced Watermelon

도매문의 : 416.419.3751

*판매 세일즈하실 분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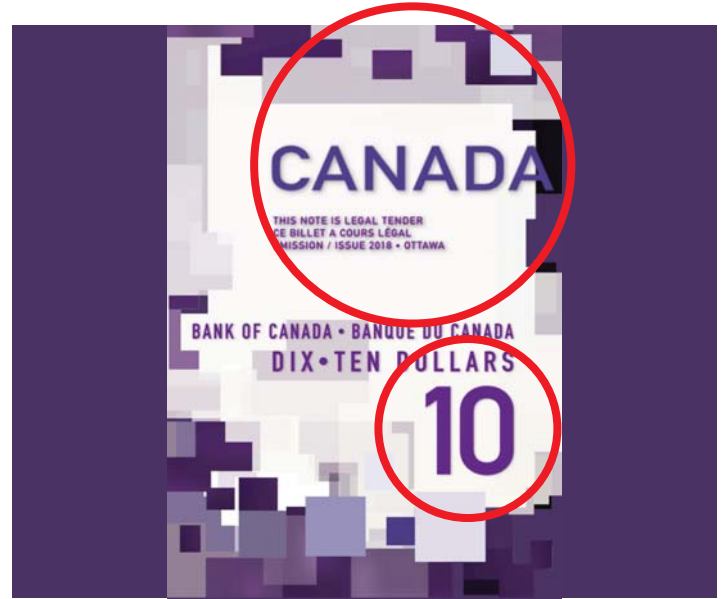
냄새가 나지 않는 간편한 최첨단 일회용 전자담배

<9면에 이어>

가장 최근에 발행된 10달러 신권의 경우, 초상화에 양각 잉크가 새겨져 있는데 10이라는 수와 국명 Canada가 큼직한 사이즈로 박혀 있다.



또, 독수리 깃털은 각도를 달리 하면 골드 컬러가 초록색으로 변한다. 2018년에 거의 매분기마다 약 8천 개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20달러와 100달러 지폐였다. 소매업 중에서도 현금 거래가 가장 빈번한 업종인 편의점에서 중사하는 사람들이 위조지폐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들인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



CBD 오일 판매하지 말아야



▲ 미국의 한 소매업소에서 진열대에 진열해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CBD오일 상품.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불법이다. 우측 사진 역시 미국의 한 소매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리화나 원료 첨가 식품이다. 마리화나를 이용한 당과류는 수도 없이 많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리화나 제품 ‘CBD오일’(Cannabidiol oil)과 마리화나를 원료로 개발된 각종 가공 식품들이 편의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어 관할 정부 기관인 AGCO(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마리화나를 원료로 변형, 가공한 식품들이 소매업소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은 선진 주요국에서 흔히 보이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팔고 있는 이유는 공급해주는 상인들이 합법적인 상품이라고 허위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와 높은 마진에 현혹되지 말고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협회가 AGCO에 문의한 결과, 규정을 몰랐거나 오인하고 팔다가 처음 적발 시에는 경고(서한을 통해)를 받지만 재차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이나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들 제품은 온타리오의 경우 정부 독점 온라인 소매채널인 OCS(Ontario Cannabis Store)에서만 구입이 가능할 뿐이다. 의료 목적의 경우는 보건부에서 허가한 업체로부

터만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 소매업소들은 CBD오일 및 마리화나 가공 먹거리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CBD오일은 뇌전증(腦電症) - 일명 간질(癲疾)이나 치매 치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반 소매업소에서 불법으로 불타나게 팔리는 이유는 진통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간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 처방을 가지고 구매되어야 하는 의료용 제품이 일반 소매업소에서 처방전도 없이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 한편, 모국에서는 이 제품을 간질 치료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순수한 치료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문한 가정이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는다. 그런데 회한한 것은 치매를 앓는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수입한다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 치료는 팬츠고 사람 치료는 단속을 받으니 CBD오일을 둘러싼 당혹스러운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

OCSA에서 협회 위상 강화 기대

큰손들 빠져나가 NACDA→CICC



해가 바뀌고 캐나다 편의점 산업을 이끄는 조직 사이에 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했다. 전국편의점협회(CCSA) 그리고 온주편의점협회(OCSA)의 재정적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부 주유소 병설 편의점 업체들이 탈퇴하고 종전의 편의점 공급사 협회인 NACDA(National Convenience Stores Distributors Association)에 가입한 것이다.

그리고 NACDA가 이들 편의점 산업의 거물들을 영입하고는 조직 개편을 했는데 지난 1월 말에 명칭을 변경했다. 변경된 조직명은 CICC(Convenience Industry Council of Canada)이며 우리 말로 '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 정도이므로 의미만 보면 결속력이나 내부 구속력은 과거 협회(Association) 보다는 느슨한 개념이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명칭보다는 실제 운영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편의점 소매업계 대표 조직인

CCSA 특히 CCSA의 실질적 파워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온주편의점협회 OCSA의 위상에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힌 형국이다.

NACDA는 편의점 소매업계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사, 제조사, 도매업체 등이 주축이 돼 1955년에 발족된 나름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다.

한편 NACDA를 개명해 새로 발족한 CICC는 당분간 웹사이트도 종래의 www.nacda.ca를 사용하며 매년 열리는 리더십 연차총회인 National Convenience Industry Summit 행사도 9월 24일부터 27일에 걸쳐 3일간 개최 예정이다. OCSA의 향후 위상과 OCSA소속 단체 회원이자 이사의 한명을 차지하고 있는 협회의 위상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거물 회원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OCSA입장에서 협회의 역할이 절실히 될 것이므로 역량 발휘 여하에 따라 협회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얼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천연의 통째 재료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소량 분배 생산 표시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최고급 점보 씨앗	VS.	VS.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조합 특감, '절반의 마무리'에서 도약의 비전을 기대하며...



OKBA 회장
신재균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조합 특감이 전임 운영이사장과 전임 전무의 일부 책임 인정 및 유용액의 일부 반납을 통해 마침내 해가 바뀐 지난 2월 11일 일단락이 됐습니다. 사후 처리까지 8개월의 길다면 긴 우리들 내부의 첫 적폐청산 작업이었습니다.

두 전임자에게 과한 책임을 물었다는 동정론이 있는가 하면 더 철저했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임자들에게 추호의 사적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공정성만 기하면 될 뿐이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여러 견해와 의견들의 난무 속에서 타협의 적정선을 찾느라 솔직히 인간적 고심도 컸습니다.

고민의 과정 속에서 과거 협회와 조합이 업혔던 소송의 상흔을 더듬기도 했고 실리와 명분의 줄다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어물쩍 끝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떠나지 않았지만 '절반의 마무리', '미완의 종결'이라는 오늘의 일보 후퇴가 내일의 이보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부조리의 역센 고리 하나를 끊었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협회와 조합의 수많은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주인의식을 방기하며 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과거사를 결코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당하지 못한 관행이 너무 오랜 세월 일상화되다 보니 부정한 행동들이 당연시되고 사욕을 채기지 못한 것이 바보라는 인식까지 생기는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오욕의 역사 속에서도 늘 정직하고 능력있는 봉사자들 또한 적지 않았기에 영광의 역사 또한 함께 하며 우리의 조직이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감 기간 중에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상담하기 짝이 없는 명단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조합과 협회에서 리더와 임원을 맡은 자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조합 물건을 외상으로 쓰고 갚지 않아 누적된 채무가 75만 달러였으며 다름아닌 그 채무자들 55명의 명단이었습니다. 물론 악성 채무로 하세월을 끌다가 대손상각해버린 거액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명단은 과거 동포 일간지에도 실명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명단을 저에게 건넨 분은 이왕 하는 특감을 먼 과거로까지 확대해 발본색원 하자는 취지에서 그리 한 것이지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간의 공금 유용을 밝히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었는데 아득한 과거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가는 특감만 하느라 세월 다 보내겠다 싶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원과 조합 주주들의 이해와 아량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조합원 여러분!

이제 협회와 조합은 특감과 그 사후 조치를 이로서 종결하고 앞으로 산적인 현안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불편 해소, 여러분의 실리 챙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과거의 왜곡된 관행의 한 축을 허물었지만 한시라도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말자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는 순간 너무나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회계 시스템을 비롯해 아무리 좋은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은 바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OKBA 장학금 수여식

Scholarship Award Ceremony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1시 OKBA 회의실

2019년도 회원 자녀 대상 장학금 수여자는 1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명단 참고) 올해는 총 19명이 신청하였으며 본부협회 이사회 장학분과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 서류 심사를 거쳐 자격 미달 2명을 제외하고 총 1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학생 당 각 500불입니다. 수여식 행사는 오는 2월 22일(금) 오후 1시에 본부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수여자 본인이 참석할 경우 당사자에게 100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 장학금 수여대상자 명단

성 명	성 명	(가나다 순)	
- 김다형	DA HYONG KIM	- 양제닌	JANINE YANG
- 김보람	SOPHIA KIM	- 유성윤	THOMAS YOU
- 김애경	ESTHER KIM	- 이귀애	CATHERINE LEE
- 남예지	YEJI NAM	- 이다니엘	DANIEL LEE
- 박승혜	SARAH PARK	- 이 상	SANG LEE
- 박인혜	INHYE PARK	- 이정훈	JEONGHOON LEE
- 송민재	JOSHUA SONG	- 이효근	HYOGEUN LEE
- 송하은	HAEUN SONG	- 한승헌	ANDY HAN
- 심현희	SOPHIA SHIM		



목전에 닥친 '평범한 담뱃갑' 정책

제조사들 준비에 부산, 소매채널도 마음 준비해야



▲ 사진 왼쪽의 담뱃갑 구조가 캐나다에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정품 담배 스타일인데 포장 통일화 정책에 따르면 오른쪽 두가지 형태의 구조로 변경 통일될 것이 예상된다.

담뱃갑포장통일화, 일명 '평범한 담뱃갑'(plain packaging) 정책이 금년 말 경에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가 현재 법제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자는 이미 선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와 유사하다. 모든 담배 브랜드의 바탕 색상이 무광택에 짙은 색조 그리고 칙칙한 갈색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각적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무늬 표면 처리를 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어떤 형태의 로고도 인쇄될 수 없고 브랜드명은 단지 담뱃갑 표면 하단에 정해진 작은 규격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또, 국내의 거의 모든 담뱃갑(pack)이 취하고 있는 형태인 뚜껑 개폐형(flip-top)은 금지한다. 대신 탄창형(slide and shell) 구조로 일원화될 것이라는 데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옆으로 담배개비가 밀려나오는 방식으로 박스형 탄창을 연상하면 된다.

메이저 담배제조사들에게는 이미 이 말이 나돌던 수년 전부터 긴장을 유발시켜온 주제로 JTI 대외협력 / 커뮤니케이션 담당 총책 캐롤라인 에 반스씨의 다음 말은 담배 회사들의 입장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다. “정부의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도입의 현실화는 회사 전체가 매달려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파트와 R&D(연구개발부서)에서부터 영업부서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회사 모든 부서와 팀들이 다 달라붙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와 변화들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해야 하고 소매업소, 도매상들과도 향후 협조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정보 교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평범한 담뱃갑 정책 하나때문에 전사적(全社的) 차원의 힘의 결집과 대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판이다.

일반담배의 포장 변화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NSTC(National Smokeless Tobacco Company) 대외협력 담당 이사 제레미 아담스씨의 말도 새겨들 만하다. “담배 제품의 변화는 포장의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만약 새 디자인으로 포장 변화할 것을 결정하고 제품 생산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영업팀과 핵심고객관리팀(KAM; Key Ac-

count Management)은 이전 포장 제품과 새 포장 제품의 비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형 제품을 당분간 판매해야 하는 과도기에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손님이 원하는 제품을 실수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NTSC는 말보로로 유명한 필립모리스 인터네셔널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미국 알트리아 그룹 소속 회사이며 1913년부터 캐나다에 무연(無煙 smokeless)담배를 공급한 유서깊은 회사다. 회사 구조를 좀더 들여다 보면 NSTC는 역시 알트리아 그룹 산하에 있는 USSTC(U.S. Smokeless Tobacco Company)의 캐나다 법인이며 지분은 알트리아가 100% 소유하고 있다. 간판급 브랜드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코펜하겐(Copenhagen)과 스콜(Skoal)이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탑 브랜드들이다. 본사는 퀘벡의 포잉클레르(Pointe-Claire)에 있으며 캐나다에 공급되는 제품은 미국 테네시 주 네슈빌에서 제조하고 있다.

시행 사전 대비의 지혜

담배제조사들은 이미 새 제도를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고 소매채널을 지원할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모색 중에 있다. 별 상관 없어 보이는 스칸디나비아인 캐나다(Scandinavian Tobacco Group Canada)까지도 평범한 담뱃갑 정책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 대표 실뱅 라포르트는 “소매채널에게 저들이 무엇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줄 것”이라며 “시가와 파이프 담배에 대해 정부측 입장이 뉘그러 명치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오타와와 소통의 선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SCANDINAVIAN TOBACCO GROUP

1961년에 창립된 시가 및 전통 파이프 담배 전문 제조회사다. 덴마크 회사이며 본사는 코펜하겐에 있다. 2008년에 일반 담배와 스누스 영업권이 영국 BAT로 넘어갔으나 시가, 파이프 담배, 말아피우는 담배 등은 여전히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영업망(별도 법인)이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 등 16개국에 포진해 있다. 총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생산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제품 브랜드로는 캡틴블랙(Captain Black)과 콜츠(Colts)가 있다.

금년 말에 시행된다고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리 시간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다. 우선 창고 재구성 작업에 직원 교육 훈련이 급선무다. 재고 파악 및 처리 작업도 매우 중요한 업무다. 모두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들인데 정부는 과도기 준비 기간으로 소매업소에게 불과 3개월을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IT쪽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할 때 최단기의 과도기라는데 담뱃갑 외형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소매업소도 보관함 재정비를 해야 하는 등 처리할 과제가 많아서 이 기간이 박찰 수가 있다.

소매업소의 촉박한 이행 준비 기간, 포장 포맷 사이즈 확대(*뚜껑개폐형에서 탄창형으로 구조 변경)가 가장 우려스러운 요소들인데 좀더 여유있게 과도기를 넘기기 위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시간 벌기 로비를 하는 것도 대응책의 하나다. 이는 업계 전문가들이 전하는 조언인데 제일 손쉬운 것으로 지역구 의원에게 청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하는 일스타일이 최종 입법화 단계에서 시행 일자가 못박히기 마련이며 일단 일자가 정해진 후에는 달리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주로부터의 교훈

전 세계적으로 8개국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확정했다. 그리고 십 수개국 이 제도 검토 단계에 있다. 시행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모두 알고 있듯이 호주였다. 2012년 겨울부터 시작했는데 편의점 업계 입장에서는 이 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 시행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인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호주 편의점 협회 (AACS; Australasian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제프 로겟(Jeff Rogut) 회장은 직접 토론토를 방문해 제도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캐나다 가 호주를 따라 하지 못하도록 대정부 로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훈수까지 두고 갔다. 그는 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영국편의점 협회측에 제도 차단을 하라고 열성적으로 격려를 하곤 했었다. 물론 허사였고 영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다시 호주 사례로 돌아와 벌써 7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나라의 편의점에 끼친 주목할 결과는 흡연자들의 소비 패턴이다. 프리미엄급 담배는 증가로, 중가 담배는 저가로 등급 하락화가 발생한 것이다. 한마디로 어느 가격대 품목군이 대체를 이루는가로 모아졌다. 브랜드 하락화는 결국 편의점 담배 매출 구성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제일 저렴한 담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당연한 결과다. 고급담배인지 싸구려 담배인지는 담뱃갑 디자인에서 시각적으로 즉각 이미지가 들어왔던 것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패키에 담겨있으니 고급담배에 대한 자부심이나 매력을 드러낼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사실 피워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이 담배 아니던가. 기호식품이다 그러하듯 담배도 은근히 대외적 체면과 과시욕에 결부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호주편의점협회 회장을 지내고 있는 제프 로겟 회장은 “특정 상품에 따라붙는 이미지가 제거되고 나니 다수의 소비자들이 최저가 담배를 스스로없이 찾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결국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은 호주 담배 판매와 관련해 매출과 수익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왔다.

브랜드 고유의 색상도 없고 특유의 디자인도 없고 제품과 제품들 사이의 특징적 브랜드가 사라지고 나니 그 담배가 그 담배같이 주인이고 종업원이고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이전처럼 신속하게 찾아내기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숙달이 되고 담배함 어디에 어느 담배가 위치하

고 있는지 익숙해지기는 하겠지만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시행착오와 투여되는 시간이 상당히 과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 종업원도 수시로 바뀌니 교육 훈련시키는 것도 주인 입장에서는 여간 고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잘못 꺼내주는 사례는 비밀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초기에는 이로 인해 손님을 많이 잃기도 했다. 급한 손님의 경우 주는대로 받아가지고 나가 어디선가 담배를 피워물었는데 맛이 이상해 비로소 담뱃갑 표면을 보고 자기가 주문했던 담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난감한 상황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신변안전 문제도 큰 걱정거리다. 이미 호주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수없이 지적했던 것이지만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빨리 꺼내지 못하고 주춤거리며 담배함쪽으로 돌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쉽게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슬쩍 하는 줌도둑이 많아질 우려가 높아진다. 실제로 그랬다. 피해가 급증했던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구에 돈을 들여 보안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필립모리스와 호주편의점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협력하에 수행했던 한 조사에 따르면 담배취급 소매업소 의 2/3가 종업원 훈련에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고 답했다. 75% 이상은 담배 손님 응대에 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답했다는데 이 모든 통계 수치는 너무나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다. 캐나다도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시행 및 확정 8개국〉

국가	소매업 시행일	생산자 시행일(생산 중단일)
오스트레일리아	2012/12/ 1	2012/10/ 1
프랑스	2017/ 1/ 1	2016/ 5/20
영국	2017/ 5/20	2016/ 5/20
뉴질랜드	2018/ 6/ 6	2018/ 3/14
노르웨이	2018/ 7/ 1	2017/ 7/ 1
아일랜드	2018/ 9/20	2017/ 9/30
헝가리	2019/ 5/20	2018/ 5/20
슬로베니아	2020/ 1/ 1	2020/ 1/ 1

위의 8개국 중 제조사 시행 기준으로는 이미 7개국이 시행 중에 있고 슬로베니아만이 이미 법은 통과됐고 과도기를 여유있게 설정해주고 있을 뿐이다. 모두 유럽과 영연방 국가에 집중해 있다. 캐나다도 영연방의 일원이니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 이어 가세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법안이 상정, 계류 중인 국가-통과 여부는 미결이지만 -로는 브라질, 칠레, 에쿠아도르, 파나마, 우루과이가 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입장을 정한 나라로는 핀란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웨덴, 타이완이 있다.

이상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제도를 공론화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보츠와나, 케냐,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팔, 갬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꼽힌다. ■

본부협회, 초청 연설 통해 “소통과 신뢰” 강조 네슬레 전국공급사 컨퍼런스

네슬레 캐나다가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회사측과 제휴한 전국 공급사 컨퍼런스 (National Distributors Conference) 연차 모임을 개최했다. 토론토 소재 앰버시 스위트 힐튼 호텔 (Embassy Suites by Hilton Toronto Airport)에서 개최된 금년 회의에는 협회측 인사도 연사로 초청해 독립편의점 채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져 주목을 끌었다.

이번 초청이 이뤄진 계기는 네슬레 아이스크림 배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회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가올 공급사 연차모임을 이용해 협회측이 이를 아예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었다.

본부협회 전승원 전무가 행사 두번째 날인 23일 오전 9시 경에 배정된 20분을 훌쩍 넘겨 40분 이상 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발표 요지〉

네슬레 아이스크림 취급 회원의 최대 관심사는 원활한 반품과 빠른 환불 조치다. 그리고 회사측이 제공한 냉장·냉동고 고장의 신속한 수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상품 홍보다. 소비자에만 신경쓰지 말고 소비자와 일선에서 마주치는 업주를 대상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홍보와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 주인이 모르면 주문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네슬레에게도 손해다. 이는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회사와 협회 회원들 사이의 갈등은 충분한 사전 소통의 미흡 또는 부재에서 비롯된다. 직접 방문을 통해 이해시키든가 통지 공문을 통해서든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사전 대화를 해야 한다. 신뢰는 소통에 기반한다. 실험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소통과 신뢰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슬레 아이스크림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은 소매유통채널을 기반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과 장점을 소매업주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사활적 과제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정보는 협회에 적기에 제공하고 한국어 버전이 있으면 금상첨화하겠다.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용역 회사 직원만 알고 있고 업주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래서는 안된다. 회사와 업주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회사는 업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예를 들어 스coop 아이스크림(scoop ice cream) 취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주들의 결심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대개 지자체 보건당국의 점검 통과와 관련 규정 등에서 번거로운 과정들이 심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린다. 따라서 구체적인 착안 사항들을 메뉴얼화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곁들인다면 가입 업주가 크게 증대할 것이다. 업주에게 맡기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을 떠안고 도와줘야 한다.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협회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윈윈 전략하의 동반자 관계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서둘러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 ■



▲ 네슬레 전국공급사 컨퍼런스에 초청연설자로 초대된 본부협회 전승원 전무가 독립편의점을 대표해 업주의 애로사항을 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19년 3월 6일

토론토 Convenience U CARWACS Show에서 열리는
OKBA 회원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무료

Blu와의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세션에 참여하십시오!

프로그램 일정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2:15 ~ 12:30
OKBA 등록 및 배지 픽업

오전 12:30 ~ 오후 1:30
blu프리젠 테이션 및 한식 뷔페 식사 제공

오후 1:30 ~ 5:00
트레이드쇼 관람

Prize Draw

1 Google Home

추첨하여 한 분께
증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www.convenienceu.ca/OKBA

등록 마감일: 2019년 3월 4일

본 이벤트는 19세 이상 회원님만 참여 가능합니다.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넥**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866) 76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866) 760-192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Take Home



Lays XL
2/\$6.50



Single Serve



Doritos
Ruffles
2/\$3

2019.2.24~3.30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 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

조합뉴스



Sincere Trading of KBA News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제1호

조합원 300여 명 → 1,000여 명으로 증가
조합 주문 시스템 호평
전자담배 업계의 총아 '블루'(blu)
K.B.A.협동조합 2월 스페셜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net

전자담배 업계의 총아 '블루'(blu)

조합 취급 성사, 회원 수익 증대 기대



미국 전자담배 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가 캐나다 시장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 최대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쥬울(juul)의 캐나다 상륙과 비슷한 시기에 진검승부를 가리자고 뛰어든 것이다. 협회는 회원 수익 창출을 위한 아이템 발굴 차원에서 베이퍼 시장에 깊이 주목해왔고 마침내 지난 1월 블루 캐나다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해 조합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첫 데뷰는 조합 고객감사의 날(2월 21일)을 기회로 선을 보이면서 조합 취급 품목에 매력 덩어리 하나를 보태게 됐다. 앞으로 고객감사의 날 행사 때마다 판촉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년 신규 사업의 성공작으로 자리매김한 광고 사업 제휴사인 어댑트미디어(Adapt Media)를 통한 광고 스폰서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며 광고 수익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는 회사명이자 브랜드명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09년에 창립됐다. 전자담배가 붐을 일으키는 초반부터 기세를 잡고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사례다. 이후 일반 담배 자연 감소 추세를 만회하기 위한 대체 담배에 관심을 기울이던 로릴라드(Lorillard)가 지난 2013년에

1억 3,500만 달러에 회사를 인수한다. 당시 미국 담배업계의 큰 화제였다. 로릴라드는 미국 담배업계 3위의 회사였다. 해가 바뀐 2014년 미국 담배 시장 2위인 레이놀즈 아메리칸(Raynolds American Inc.)이 로릴라드를 274억 달러에 인수 합병하면서 블루의 주인은 레이놀즈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레이놀즈는 인수와 동시에 '블루'만 따로 떼어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 임페리얼 토바코(Imperial Tobacco Group)에 71억 달러에 매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페리얼 토바코(*캐나다 임페리얼 토바코가 아니며 캐나다 임페리얼 토바코는 BAT그룹의 캐나다 법인임)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BAT, Japan Tobacco에 이어 세계 4위의 담배 회사로 회사명을 지난 2016년 임페리얼 브랜드(Imperial Brands)개명했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42%를 점유해던 블루는 부동의 1위를 달리다가 베이퍼 시장의 균용할거 시대를 맞이하며 특히 2016년에 시장에 등장한 쥬울에 1위 자리를 넘겨 준 상태다. 하지만 과거의 명성과 전통 그리고 막강한 담배회사의 자금력을 안고 캐나다 시장에서의 판도를 휘저을 판이어서 지켜볼 일이다. ■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 (MSRP)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이사 (가나다 순)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u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가나다 순)
백사열 (Sah-Yeal Paik)
장해민 (Hae Min Jang)

■ K.B.A. 전무 : 전승원 (Sunny Chon)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조합원 300여 명 → 1,000여 명으로 증가

협회 회원 전원 조합원 자격 획득, 조합 정관 개정 결과



▲ 지난해 12월 4일 조합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재석 주주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300명을 약간 웃돌던 협동조합 주주 수가 1,000 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나마 협회 회원이면서 조합원인 경우를 따지면 270여 명 남짓이었으나 1,000여 명 협회 회원 전원이 조합 주주 자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회원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2월 4일 개최됐던 협동조합 연차 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결과였다.

과거 협회와 조합의 갈등이 심각하게 치달던 시절에 조합은 1달러 보통주를 100달러로 급격히 인상하며 협회 회원들의 진입 장벽을 쳤다. 이때문에 멀쩡히 1달러 주식을 가지고 조합원이었던 수많은 회원들이 100달러 보통주를 구입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해프닝이 지난해 조합 총회 때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에 보통주 100달러를 과거처럼 1달러로 환원하며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이었던 연 3회 협동조합 소평 의무도 최소 2년 동안 1회 이상 소평으로 대폭 완화했다. 조합은 현재 협회로부터 회원 명부를 건네 받아 보통주 명단 정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회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에게 1달러 보통주 주권(株券)을 발행해 개별 송부할 예정이다. ■

조합 주문 시스템 호평

팩스/카톡 주문 가능,
온라인 주문 시스템 개발 중



협동조합 웨스트몰 매장 쇼핑 환경이 크게 개선돼 조합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10월 12일부터 팩스 주문을 받기 시작해 현재 카톡 주문도 가능해졌다. 주문 조건은 다음 사항에만 유념하면 된다.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방문하는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날 오전(점심인 12시 이전)시간 까지 주문을 넣으면 다음날 조합을 찾아 주문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날 오전에 주문한 물건을 다음날 오전에 찾으러 올 경우에는 조합에 전화를 해서 수령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이미 조합은 몇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문제를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모든 조합원으로 확대하

게 됐다.

주문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용지에 필요한 물건을 적어 조합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번 주문 시스템 실시는 주문 물품들의 인기 종목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재고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이 발전해 거듭 정작되면 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문처 >

팩스 : 416-867-9530 (매장), 416-789-5013 (사무실)

카톡 : 647-607-8362 ■

2019 Special Sale

February 1 ~ 28



18⁹⁹

Fiji
 24/500ml Reg.\$25.59 **Spe.\$18.99**
 12/1L Reg.\$23.39 **Spe.\$16.99**
 12/1.5L Reg.\$26.69 **Spe.\$19.99**

1²⁹

Lasso
 Fruite 6/2L All Flavours Reg.\$12.99 **Spe.\$7.99**
 Del Monte 12/960ml All Flavours Reg.\$1.79 **Spe.\$1.29**
 Oasis 12/960ml All Flavours Reg.\$1.79 **Spe.\$1.29**

1⁵⁹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15¹⁹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42⁹⁹

Bic
 Regular Large Reg.\$50.99 **Spe.\$42.99**
 Mini Reg.\$44.99 **Spe.\$38.99**

PURINA

Nestle Purina
 Cat Chow 1.6kg-2kg All Flavours Reg.\$7.5 **Spe.\$6.99**
 Cat Chow 750g Reg.\$3.39 **Spe.\$2.79**
 Wet Cat Fancy Feast 24/85g All Flavours Reg.\$16.59 **Spe.\$12.89**
 Tidy Cat 6.35kg All Flavours Reg.\$6.89 **Spe.\$5.79**

17⁹⁹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2⁴⁹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2⁷⁹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Flexi Wings 12pk	4.69	3.95
Flexi Wings 16pk	4.69	3.95
Reg 64pk	4.69	3.95
ALWAYS THIN/MINCE FLEXI-STYLE		
Pant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my blu INTENSE

4 mg/ml NICOTINE

1.5ml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Battery + 2 PODS - BUNDLE
 (Tobacco and Menthol)
\$17.99 INTRO PRICE



Dare

Real Fruit Gummies 180g All Flavours Reg.\$1.99 **Spe.\$1.79**
 Scotch Mints 200g Reg.\$1.89 **Spe.\$1.69**
 Jelly Beans 250g Reg.\$1.89 **Spe.\$1.69**
 Ju Jubes 250g Reg.\$1.89 **Spe.\$1.69**
 Spearmint Scotch Mints 200g Reg.\$1.89 **Spe.\$1.69**



Kettle Chips
 220g All Flavours Reg.\$2.59

1.99



General Mills
 Honey Nut Cheerios 330g
 Reg.\$3.29 **Spe.\$1.99**

1.9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6.49



Maple Syrup
 Camp 100% pure 250ml
 Reg.\$6.99 **Spe.\$4.99**

4.99

13.99



C.B.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4.19



Weetabix
 Whole Grain Cereal 400g
 Reg.\$3.99 **Spe.\$1.99**

1.99



4.99

Planters

Cashew Salted 275g
 Reg.\$6.99 **Spe.\$4.99**



**Kingsford's
 Cornstarch**

454g Reg.\$1.49 **Spe.\$0.89**

0.89



18.99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8.99**



Heinz
 Beans 398ml All Flavours
 Reg.\$1.79 **Spe.\$1.09**

1.09



Regal

- Incredibles 2 Choclate Surprise Eggs (24) \$26.79 **\$23.29**
- Mickey Mouse 90th Anniv. Choco Surprise Eggs (24) \$26.79 **\$23.29**
- Shimmer N Shine Choco Surprise Eggs (24) \$26.79 **\$23.29**
- Star Wars Chocolate Surprise Eggs (24) \$26.79 **\$23.29**
- Paw Patrol Chocolate Surprise Eggs (24) \$26.79 **\$23.29**
- Mr Men Little Miss Chocolate Surprise Eggs (24) \$26.79 **\$23.29**
- Disney Cars Chocolate Surprise Eggs (24) \$26.79 **\$23.29**
- Emoji Choco Surprise Eggs (24) \$26.79 **\$23.29**
- Disney Minnie Mouse Choc. Surprise Eggs (24) \$26.79 **\$23.29**
- NHL Chocolate Surprise Eggs (24) \$26.79 **\$23.29**
- Avengers Chocolate Surprise Eggs (24) \$26.79 **\$23.29**
- Ultimate Spiderman Choco Surprise Eggs (24) \$26.79 **\$23.29**



Kellogg

Pringles Mega Can 194g - 202g All Flavours Reg.\$2.49 **Spe.\$1.99**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1.99



SPAM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99 **Spe.\$3.39**

3.39



Mr. Noodles

Cups 12/64g All Flavours Reg.\$10.79 **Spe.\$8.99**
 Flats 24/85g All Flavours Reg.\$7.59 **Spe.\$7.29**
 Bowls 12/110g All Flavours Reg.\$15.89 **Spe.\$13.99**

13.99



Stagg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3.19 **Spe.\$2.89**

2.89



Green Giant

Canned Vegetables 241~298ml
 All Kinds Reg.\$1.49 **Spe.\$1.25**

1.25